

'전통연희 판놀음 : 모던연희' 공연

국악뮤지컬 '이팝: 소리꽃' 성료

국립무형유산원, 9월 1~3일 탈춤·고무악·무용극 등 다채로운 무대 선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9월 1~3일 중정에서 '전통연희 판놀음 : 모던연희'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통적인 연희무대인 '판'의 열린 공간에서 공연자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형 공연이다.

특히 올해는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는 '2023 무형유산축전' 개막을 축하하며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전통연희 판놀음의 첫 무대는 전승과 창조를 주제로 9월 1일 오후 7시 30분 펼쳐진다. 신명과 화합을 알리는 '고무악'으로 문을 열고, '고성오광대' 땀배기춤의 명인으로 알려진 이윤석 보유자와 그 후대 전승자들이 함께 3세대에 걸친 전승의 맥을 보여줄 '고성의 맥 이름'에 이어 마지막으로 탈춤에 대한 열린 상상을 창조적으로 보여줄 '추는 사람'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다음날인 2일 오후 4시에 '케이아트(K-arts)' 무용단의 변화무쌍한 창작춤 '새로움을 더 새롭게'를 시작으로 오후 5시에는 전국의 대표적인 탈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천하제일탈공작소'의 '가장무도:함께탈춤'이 진행된다.

또 오후 7시에는 판소리 흥부가를 재창작한 '움직임팩토리'의 무용극 '친구따라 제비간다'가, 마지막으로 오후 8시에는 연희집단 '더(The) 판대'의 재담극 안대천이 선보일 유쾌·



'전통연희 판놀음 : 모던연희' 포스터

상쾌·통쾌한 연희판의 땀처리 공연 '연희땀쇼!'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1시에는 전승자와 남녀노소 관객이 함께 만들어 내는 시인탈춤 공연 '마실가듯 탈춤'이, 오후 3시에는 사자탈과

하늘을 휘젓는 용들의 한판 놀음 '용호상박'이 개최된다.

이어 '평택농악보존회'의 '점고(點考) : 다시, 시작을 울린다'는 역동적인 판굿과 개인놀이로 흥을 돋우고 일상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전통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예술단체인 '연희공방 음악경쟁'이 행사 기간 내내 인형과 관객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막간 인형극 '여보, 마누라'를 선보인다.

전통연희 판놀음은 무료공연으로,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예약(하루 500명 내외)하거나, 현장 참여 모두 가능하다. 사전예약 관람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모든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네이버TV(tv.naver.com/nihc)와 유튜브(www.youtube.com/@nihc2014)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공연자와 국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18회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마쳐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는 지난 19일 고창신재효관소리공원에서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이팝: 소리꽃' 국악뮤지컬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이팝: 소리꽃' 공연은 2012년 '오동나무집 이야기, 新 도리화가' 공연을 시작으로 총 12년간 지속된 세계유산도시 고창 대표 브랜드 상설공연으로 올해는 5월 27일부터 신재효관소리공원 내 야외특설무대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총 18회 공연을 이어갔다.

'이팝: 소리꽃' 공연은 고창 출신 조선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과 채선의 모(母)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국악뮤지컬로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문화유산인 고창농악, 판소리, 그리고 다양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잘 녹여낸 완성도 높은 브랜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올해 5월 14일 개관한 신재효관 소리공원을 기념하고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간 성승농악전수관에서 해왔던



공연을 고창을 관내로 들여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매회 자리가 거의 매진되는 등 고창국악뮤지컬의 품격을 한단계 높였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내년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공연으로 고창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 세계인이 이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러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홍)로부터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 인증을 받는 수여식을 지난 22일 개최했다.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은 스포츠안전재단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45001 규격과 2012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한 표준 규격으로서 국내 스포츠행사의 안전관리 표준화를 위해 공식적으로 채택·운영하는 인증제도이다.

이번 인증으로 태권도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위험성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태권도대회 안전관리 시스템 표준화를 인정받게 되었다. 앞서, 지난 7월 개최된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에서 위 안전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태권도계 최초로 적용, 운영한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증 획득은 우리 재단의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태권도 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 개최되는 국내 태권도대회에 이번에 획득한 안전 매뉴얼을 전파하여 안전한 대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전주박물관, 금속공예 '웬던트 목걸이 만들기' 체험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진아)은 9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금속공예 '웬던트 목걸이 만들기'를 9월 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25~3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박물관에 따르면 순도 99.9% 이상의 순은점을 주재료로 사용해 목걸이의 퀘던트를 만

들어보는 이번 체험행사는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제작해 간직할 수 있는 기회로, 체험과정은 디자인을 구상해 디자인보드에 스케치하고, 순은점도를 조형한 후 장식을 해줄 합성석을 얹은 다음 건조를 시켜 가마에 굽는 방식이다.

이후 식어서 단단해진 금속에 광을 내주면 순은 특유의 빛깔을 뽐내는데, 이와 같이 조형부터 금속 성질을 살리는 방법 등 금속공예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배우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소멸시대 대비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교수연구자연합·장수군, 디지털콘텐츠·신생명산업 기반구축 중심 모색 위한 정책세미나 25일 개최

전북교수연구자연합(회장 우석대 최광수 교수)은 지역소멸시대를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을 디지털콘텐츠·신생명산업 기반구축을 중심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함께 오는 25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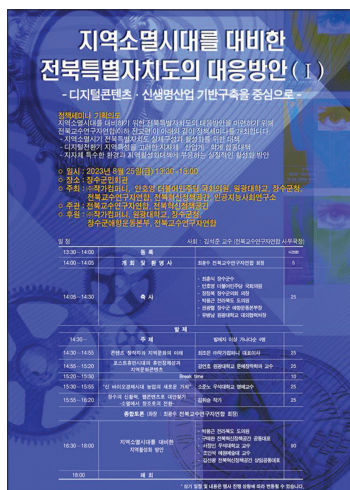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지역소멸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실체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디지털전환기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산업계·학계 합동대책, 지자체의 특수한 환경과 지역활성화대책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여하는 최조은

(주)작가컴퍼니 대표가 '문화콘텐츠 창작과 지역의 미래', 강연호 원광대 교수가 '포스트 휴먼시대의 휴먼정책성과 지역문화 콘텐츠', 소준노 우석대 명예교수가 '신 바이오 경제시대 농어의 새로운 가치', 김휘승 작가가 '장수의 신활력, 웹콘텐츠로 대안찾기' 등을 발표한다.

최광수 교수를 좌장으로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 구대완 전북혁신정책공간 공동대표, 서정인 우석대 교수, 조인석 예원예술대 교수, 김선광 전북혁신정책공간 상임공동대표 등이 지역소멸시대를 대비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갖는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